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성장·균형발전'

진도군,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총사업비 1631억원 투입 2025년까지 진행 예정 쾌적·안전 환경·자연 숨쉬는 생활만족도시 조성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1,631억원을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 총 사업건수는 19개 사업으로 ▲진도천 정비(481억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115억원) ▲아리랑 거거리 조성(100억원) ▲LPG 배관망 지원(27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116억원) 등이다.

국토부의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입,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구)우체국 부지가 선정돼 64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115억원을 확보해 진도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진도읍 성내·남동·쌍정·교동리 일원은 오랫동안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화로 주거재생과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 주민 교육·홍보, 전문가 자문 등 주민과 자치단체 등 여러 지원조직이 협력해 지역 내 사업을 발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옥주길 활성화, 마을 주거환경개선, 옥주골 어울림센터, 아리랑정년장작소 조성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경제 활성화와 마을 경관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진도 전통·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도 추진된다.

'아리랑 Good(굿)거리 조성'은 2022년까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진도 조금시장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장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 ▲아리랑 Good(굿) 공원 조성 ▲Good(굿) 갤러리 콘텐츠 개발 ▲조금

시장 청년 창업물 등을 개설한다.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오는 2025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인 진도읍 남문로 일원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비는 거리 정비와 기반공사, 상설시장 편의시설 개선, 아리랑길 조성 등에 지원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 브랜딩, 프리마켓 운영, 해적포육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도읍 일대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81억원을 투입, '진도읍 해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교량 재가설(3개소) ▲호안정비(길이 4.4km) ▲하천부지·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실시한다.

진도읍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6억원을 투입한다.

2023년까지 진도읍 일원의 ▲군강공원-노인복지관 ▲읍과출소-옥주빌라 ▲(구)문화원-향교 ▲사거리 일원 ▲북산리 일원에 5개 노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진도읍 소재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한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진도읍 남부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진도읍 남부권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다.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2,900세대 가스 공급을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진도읍 아리랑 사거리-진도터미널 등 진도읍 남문로와 새마을금고 오거리, 진도휴게소 등 3곳으로 약 1.5km를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통행 불편 해소를 비롯해 시가지 교통 여건 개선, 관공지 미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읍 LPG 배관망 사업과 병행 추진해 사업비 절감과 이중 굴착 방지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진도읍의 관문인 동외 교차로는 2023년까지 47억원을 투입, 광장·동외교차로 정비·조형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구)소방서 일원에 2021년 3월 입주 예정인 100세대 공공주택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립미술관은 (구)한국농어촌공사를 매입, 내년부터 전시장 확보와 주차장 설치 공사도 실시한다.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 소재지 경관 조형물과 주요 도로 가로등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도천 산책로를 비롯해 7개 읍면 소재지 등에 경관조형 설치를 완료했으며, 마을 입구와 주요 도로 가로등도 내년 말까지 설치 완료 목표라고 하고 있다.

군은 밝아진 도로 환경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거리 제고를 통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억2천만원을 투입, 진도읍 주요 시가지와 도심 속 소공원 등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으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린뉴딜 플러워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플러워 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심속 소공원·꽃밭 ▲아리랑 사거리 등 읍 시가지 파노라 가로수 ▲교량 난간 가로 화분 꽃길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민선 7기 진도군의 핵심 가치는 주민의 행복과 진도군의 가치를 더욱 확실하게 높이는 것"이라며 "교통, 안전, 공원, 문화, 콘텐츠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욱 올라가도록 진도읍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겉은 검고 속은 붉은 귀족토마토 수확

칠량면 예진농장 국내 유일 재배

지난 22일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리 예진농장에서 최광호 신선영씨 부부가 맛과 영양성분이 월등해 귀족토마토로 불리는 계란만한 크기의 '초코볼' 토마토 수확에 여념이 없다.

이스라엘이 원산지인 흑토마토 초코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진농장에서만 재배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정식을 마치고 11월부터 수확에 들어간 예진농장의 토마토는 내년 6월까지 모두 68톤의 수확이 예상되며 인터넷에 '초코볼 토마토'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설비와 환경에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병해충을 줄



이고 품질을 높여 GAP인증도 획득했고 일반토마토보다 껍질이 얇아 식감이 좋고 황산화 물질인 리코펜은 내년 6월까지 모두 68톤의 수확이 예상되며 인터넷에 '초코볼 토마토'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설비와 환경에 스마트농업을 도입해 병해충을 줄

토마토 재배로 기존 농법을 탈피한 영농기술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0월 농림전남지역본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과 함께 11월 11일에는 청와대가 마련한 제25회 농업인의 날에 초청되는 영광도 안았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471억 원 투입 상습 침수 해결

완도읍 가용지구·군내지구 침수예방사업 추진 중

완도군은 완도읍의 상습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에 가용지구와 군내지구가 지정되어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해 2014년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에 가용지구와 군내지구 201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지난해 1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 220억 원이 투입되며, 암거 등의 우수관로 10.08km와 빗물받이 358개소, 배수문 정비 4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등이 설치된다.

2021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우수관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가용지구와 별도로 지난 9월, 상습 침수 구역인 군내지구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군내지구도 매립 저지대로 만조 시 배수 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총 사업비 251억 원이 투입되며, 군내리 일원에 빗물펌프장 2개소, 관로 7.2km를 개량한다.

완도=김광수기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 입주 기업 제품 해외 수출 시작

장흥군은 지난 16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제이엠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칠레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수출 약식 행사에는 제이엠바이오 대표와 임원, 조은(주), 장흥군 지역경제과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이엠바이오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로 JM글리코자임(사료 첨가제) 12톤을 수출하였으며, 추가 주문 문의가 이어져 향후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M 글리코자임은 당영양소, 베타글루칸, 효모, 효소 등이 합쳐진 복합 제품으로, 기존 사료에 첨가 시 축산과 수산물의 성장과 증체율이 10% 이상 개선되고, 면역 증진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

박주용 제이엠바이오 대표는 "이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27개국을 대상으로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19가 진정되어 중국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산단입주기업인협의회와 협력해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